

투데이

‘한국인 아내’는 미국의 엘리트 고발 ‘미국인 남편’은 한국 사회운동 분석

광주출신 다류감독 신은정씨 6일 광주서 ‘북콘서트’ 카치아피카스 교수 내달 ‘아시아의... 항쟁들’ 출간

“양키 고우 홈~”

2001년 방송작가로, 인권영화제 기획자로 활동하던 신은정(41)씨와 조지 카치아피카스(63·웨트워스 공과대학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1980년 당시 독일에서 TV화면으로 광주의 참상을 보고 늘 가슴에 담아두었던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당시 광주민중항쟁 연구를 위해 전남대 5·18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그를 만난 신씨는 ‘5·18과 미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 외쳤다.

이후 2004년 무등산에서 전통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미국 보스턴으로 떠났다.

최근 ‘한국인 아내’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하버드 대학을 해부하는 책을 출간했고 ‘미국인 남편’은 동화운동부터 촛불까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분석하는 책을 펴낼 예정이다. 미국인 친구들은 ‘참 재미있는 부부’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구를 돕고 있는 좋은 파트너’다. 아내는 남편이 연구하는 동안 통역과 번역을 진행하고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자료들을 조사했다. 남편은 아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이였을 뿐 아니라, 정보원, 운전기사로도 일을 주었다. 작업이 힘에 부칠 때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했다.

신씨의 책은 지난해 제작한 다큐에서 출발했다. 신씨는 하버드 대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과 영문판 ‘VERITAS : Everybody loves Harvard’를 제작했다. 노암 촘스키 등의 인터뷰를 통해 하버드의 이면을 파헤친 이 작품은 지난해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류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다. 국내 출판계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최근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시대의 창 펴냄)을 내놓았다.

“다큐에 담으려했던 내용과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썼어요. 즐겁고도 두려운 작업이었죠. 자료를 더 세심하게 찾고 인터뷰도 더 진행하고, 디테일한 자료들로 논리를 세우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했죠.”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아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하버드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데 그런 하버드를 통해 미국 지배 엘리트들 들여다보고 이를 폭로한 아내의 작업에 절대적 신뢰를 보냅니다. 하버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요. 하버드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

요하고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대 하버드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한국인이라는 점이, 그리고 광주 출신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5·18과 미국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는 8월 출간될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항쟁들’(전 2권·난장 펴냄)의 번역 마무리 작업중이다. 그중 1권은 동학부터 촛불까지 ‘사회운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을 분석한 책이다. 그는 책을 쓰기 위해 50여명의 시민군과 고 김근태 상임고문 등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취재했다.

“하버드 관련 작업을 3년간 진행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낙관과 믿을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6월항쟁 25주년 국민행사’에서 다류 ‘베리타스’ 부스를 운영한 신은정씨와 남편 카치아피카스 교수.

을 갖게 됐죠. 백년간 하버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하다 보니 인류의 역사가 저항의 역사이고, 혹독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보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대학과 교육의 의미를 고민하고 한국사회의 맹목적인 질주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 5월 터키 국제노동영화제 등에서 다류를 상영했던 신씨는 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류 상영회를 갖는다. 올해까지 영문판 출간 작업을 마무리할 신씨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관련된 또 다른 다류 제작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실천대회 서약 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실천대회’에 참가한 공무원과 학생, 여성, 운전자 등 각계 대표들이 교통안전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실천대회’에 참가한 공무원과 학생, 여성, 운전자 등 각계 대표들이 교통안전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 특급호텔 추가 건립 잇따라 불발

동부서 부지 등 3건 수의 등 투자여건 안맞아

광주 관광 인프라의 핵심인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0월 국내 투자자와 500억원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이 투자자의 재정 여력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2월에는 강은대 시장이 중국을 방문, 현지 업체 관계자와 5성급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중국 업체 측이 카지노 건립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의 한 투자자가 지난해부터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부지에 호텔건립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와 협의과정에서 투자 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이 투자자는 2500억원을 들여 동부경찰서와 주변 사유지 5300여㎡에 40층 규모의 특급호텔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발맞춰 관광업계로부터 기대를 모았었다.

이처럼 특급호텔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특급호텔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급호텔 1~2곳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에 특급호텔 건립 의향을 밝히는 투자자들은 적지 않지만, 실제 건립 단계에 들어 가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발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주의 투자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특급호텔 추가 건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특1급 호텔 2곳(라마다 플라자 광주, 힐리데인 광주), 특2급 호텔 2곳(프라도, 신양파크), 1급 관광호텔 5곳이 운영되고 있다. /홍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F1 수의구조 개선 관련법 개정 재추진

F1 조직위는 3일 “대회 수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1대회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F1대회지원법과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번엔 다시 개정 작업을 벌인다.

F1대회지원법의 경우 F1조직위를 수의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F1대회 육외광고물 수의금 배분대상에 포함해 자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F1대회지원법과 육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육외광고 수의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내다봤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F1

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도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F1 조직위를 ‘정부업무담당단체’로 지정, 수의사업의 부가가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가세 면제시 매년 20억~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F1 대회의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특수전자설비 등의 품목은 면세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경기운영과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항도 포함됐다.

F1조직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10월까지, F1대회지원법의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10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극에 세석평전·인수봉... 국내지명 고유 지명 등재

세석평전, 인수봉 등 국내 지명이 남극 고유 지명으로 등재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제정한 남극 지명 10개가 남극 지명사전(CGA)에 새롭게 포함된다. 3일 밝혔다. 지난해 백제봉, 아리랑봉 등 17개의 남극 국제지명을 등 록한 우리나라는 이로써 총 27개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등재되는 지명은 우리나라 고유 지명에서 이름을 따오거나 우리 지형과 유사한 남극 지명에 우리 지명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남극지명사전에는 23개국이 등록한 지명 약 3만7000개가 수록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본사 인사
▲李尙濤(중부추진본부 영암주재) :의원면직 (7월 4일자)

호남고속도 동광주IC~ 광산IC 확장 추진

광주지역의 도로교통 분야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동광주IC~광산IC 간(11km·조감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해양부, 광주시, 도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 짓고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총공사비는 372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345억원은 국비로 조달하고 보상비와 용역IC 신설 등 환경개선비용 일부는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 하반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지난

1973년 2차선으로 개통한 뒤 1986년 4차선으로 확장됐지만, 하루 평균 통행량이 10만대에 육박하고 있어 6차로 확장기준인 5만2000대를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지·정체 현상이 심하게 고착되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광주시 심정보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가 확장되면 교통 체증 해소와 더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



던 용역IC 진입로가 신설되고, 비엔날레 입구 등 교량(5개소)이 추가 건설되며 도로주변 방음시설이 대폭 증비됨으로써 가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에서 강원도 가는 빠르고 편안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1시간 20분만에 도착!
양양에서 강릉, 속초까지 차량으로 30분!

광주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주 3회 왕복운항 합니다.

BEECHCRAFT 1900D

항공사 :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KOREA EXPRESS AIR (최초 에어택시 운영, 첫운항 후 무사고 안전 운항 중)

문의처 : 예약전화 : 1661-2682, www.keair.co.kr · 공항안내 : www.airport.co.kr/doc/yangyang

구분	운항요일	출발시간	소요시간
목 : 왕복 1회	양양 : 10시 30분 김해 : 18시		
양양 → 김해	금 : 왕복 2회 양양 : 07시 50분 / 17시 10분 김해 : 09시 30분 / 19시		1시간 10분
토 일 : 왕복 2회	양양 : 09시 / 17시 10분 김해 : 10시 50분 / 19시		
양양 → 광주	금·토·일 : 왕복 1회 양양 : 13시 광주 : 15시 10분		1시간 20분
양양 → 김포	목요일 : 김포발 월요일 : 양양발	김포 : 09시 양양 : 09시	50분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취항 이벤트
군장병 20% 할인

강원도 GANGWON PROVINCE